

머리글

김도훈 라파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은총의 사순 시기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력으로 3월 6일 재의 수요일부터는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참회와 회개, 보속과 극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여 성화 되고 이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거룩한 은총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참회와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선포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선포의 과정에서도 ‘먹보요 술꾼이며 죄인들의 친구’라는 놀림을 당하시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회개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 죽음이 눈 앞에 다가오셨을 때도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지요.

그만큼 회개, 곧 하느님께 돌아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각자의 회개보다도 지나치게 타인 혹은 공동체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보다도 오직 그들의 단죄와 엄벌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노의 사회, 오늘의 사회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정치면이고 사회면이고 신문기사에 난 인터넷 댓글은 무엇하나 읽기 힘이 듭니다. 반인륜적 범죄야 이해한다 치더라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에도 도의를 넘어서는 욕설과 인신공격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저렇게 스스로 입을 더럽히고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문제에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애써 죄를 하나 더 지어가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고 단죄하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 낫다고 위안 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힘든 회개의 작업을 회피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왜 그리 타인의 잘못과 단죄, 벌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일 겁니다. 다시 말해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죄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지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너무나 다행인 건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당당하다며 타인을 단죄하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 많고 초라하지만 회개하는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죄하고 욕하는 이들 역시도 하느님께서서는 구원으로 함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증오를 품고 미움과 분노 속에 타인과 여타 공동체에 대한 단죄보다도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증오와 미움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자리하시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부디 이 거룩한 은총의 시기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1월 19일(토)~20일(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이 강화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를 비롯한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 김도훈 라파엘 신부, 운영위원 6명과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사업 분야 운영위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넓힐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1월 28일(월)~30일(수) 한국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담양 대건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사제, 수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2019년 일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가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레미사

2월 1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레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2월 1일 사제 서품을 받은 김여옥 프란치스코 신부를 비롯해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와 살레시오회 강봉묵 마티아 신부, 강인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공동 집전하였습니다. 김여옥 신부는 2011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모라토리엄(6개월)을 보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여옥 신부는 “대전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교정사목에 관심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을 맡아주셨던 강봉묵 신부와 새로 담당이 된 강인석 신부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교정사목 사제단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점’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김희순 크리스천시아_분류심사원 여사 봉사자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분류심사원에 가던 날이 바로 어제만 같은데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교정사목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사’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일회성이 아닌 고정적인 봉사 활동을 원했었는데 일하는 주부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매주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청소년 교정사목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청소년 사목이라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분류심사원 봉사를 통해 청소년 사목을 맡은 살레시오를 알게 되고 살레시오 협력자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기분이 상할까 봐 참아보려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초반 봉사 활동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저 자신이 봉사자로 부족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 같아 불만족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신부님과 선배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이 ‘동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동반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열심히 보내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니 ‘동반’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리고 기도해준다는 말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 사회에 나가면 성당에 다녀보겠다는 말을 들을 때.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신부님들은 분류심사원은 작은 밑알을 아이들 마음에 뿌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밑알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오래도록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동반해주시는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이들이 분류심사원 봉사자들과 더불어 좋은 인연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류심사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라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분류심사원 아이들을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그들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하느님께서 내리신 축복,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창세 22,17)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은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묻고, 아브라함 역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후손이라고는 하가르에게서 나온 이스마엘,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이사악 뿐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갔기에 남은 이사악이라도 장가를 보내서 손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동생 나호르는 밀카와 8명의 자녀가 있고, 심지어 조카 한 명은 이미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다는 소식, 그리고 루우마라는 소실과는 4명의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창세 22,20-24). 질투감도 생길 수 있을 테고 어쩌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종을 불러 아들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서 찾아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이사악의 아내를 데려오는 역할은 단순한 중매쟁이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번성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축복을 성취하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은 맹세합니다. 종이 서약하자,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축복을 합니다(창세 24,2-7).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파견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사제 서품 예식과 수도자 서원이 연상됩니다. 대상자는 서약합니다. 그리고 집전자는 하느님께서 이들을 잘 이끄시길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사제품의 경우, 집전자는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사제, 수도자의 역할이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그 종이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오는 것’(바룩 5,5)을 보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축복을 성취하게끔 하고 그리스도의 정배(淨配)라 불리는 교회를 하느님께 이끌고 가는 하느님의 이름 없는 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단 성직자, 수도자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통해 하느님만을 믿고 악을 끊는다고 서약했습니다. 세례성사의 완성인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기를 빌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브라함 종의 역할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종의 역할은 가나안족에서 신분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사악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족은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풍습에 젖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느님 종의 역할은 참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죄에 젖어 있는 습성에서 벗어나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하느님을 그리워함의 모습을 찾게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정사목에 종사하는 성직자, 수도자, 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비록 교정시설에 있지만,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은 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그 유창한 설교가처럼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성경을 마구 외워서 쏘아붙이는 다른 동료들처럼 뛰어난 암기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눈길을 돌려봅니다.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창세 24,12) 기도하고, 레베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니 레베카가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창세 24, 27). 내 능력, 내 솜씨에 의지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내 만족은 이룰지 모르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다가가셨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물을 건네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신부에게 데려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직접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 다가오셨고,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종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름이 자신을 규정하고, 또한 명예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임에도, 가나안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 머나먼 길(약 640Km)을 노구의 몸을 끌고 다녀왔음에도, 그리고 이 종이 하느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가문 번성을 성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 종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느님 일을 하기보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 일을 행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희망의 사다리 기쁨과희망은행



❖ 김영신 베네딕도 운영위원장

‘교회로부터 받는 임명장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출소자들의 재활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회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도움이 절실하여 찾아온 이들에게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창업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무게는 따뜻한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창업도 성공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열악한 환경과 소자본으로 성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단 한 사람의 출소자라도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며, 이 길이 주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처럼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우길수 프란치스코 운영위원

찬미 예수님! 올 한해 교정사목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미력한 힘이 출소자들이 재기하는데 작은 밑알이 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 여러분! 창업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장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정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신의 눈높이 확인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 모세종 여호수아 운영위원

기쁨과희망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포용의 품으로, 가장 헌신적이고 꾸준히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범죄경력자의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도소에서 사회까지 자립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끊임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실질적인 자립역량과 자립준비금이 쌓이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진행되고,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기관들과 사람들이 협업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이 이러한 혁신을 잘 해내리라 믿기에, 부족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잔기예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가장 세레 주일을 맞아 잠시 세레 댁의 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 23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기본적인 교리 지식도 없이 신부님을 따라 주일학교 끝에 세레를
뵙기로 잔 살 작은 초제가 있었습니다.

세레서 때 전 사원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본국에 나같이
고개나 저저러 있어서 두들 갈아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기를 들은 목사님 자매님들이 다들 신도들에게 사정사정 하여
세레식 작전에 나감을 물었습니다.

제 본국에 저저러 있던 나감 2개는 세상과의 연결과 과거의
적에 단단히 묶여 있는 저의 막대한 정감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광복절을 기약장을 벗겨내고 평상에 대달아
예나님 두으로 내려받으신 것처럼 저도 그날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예나님 두에 서게 되면서 저를 돌아보고 있던 사들이 풀렸습니다.

세레성사를 통해 아전의 내가 주고 자느님의 아들로 서로
태어나고 오간의 감동을 이제 둘로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는 나두으로 첫 영성제를 했을 때 내 안에서 일동하던
드거노 기도의 실재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가슴에
있는 아들이야!" (루카 3-22) 는 성령의 화성이 아니었을까요?

주. 임강 잔반 회교 개절만큼 돌아간했던 내 성은 거대한
감대처럼 귀태로웠습니다.

한편 저에게 자느님께서 세레성사의 도움으로 기뻐하시는 속지에
참 많이 잘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홍시와 구리의 도움을 베풀어 주신 자느님께 감사하며 인양하는
살을 살아야겠지요!



우를 성취할도 주사예 "하느님께는 인간의 죄개와 구원이나 더
아름답게 드시노 일이 없으니, 아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나치안조의 성 그레고리는 죄고리의 강박이 있었습니.

또 할수드네도 "죽어하노 자가 시 자리에노 완전한 너인도
강제 될 수 없다"는 비바한 구원이 있었습니.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노 순간이 인간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참사라는 뜻 내것입니다.

인간은 살아내면서 아담 안에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고 믿습니!
잔잔하고 쇠잔한 성을 자신을 지키노 번민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데려노 자신과 이웃을 신중스럽게 안드노 정백이 되기도 해서
인내한 성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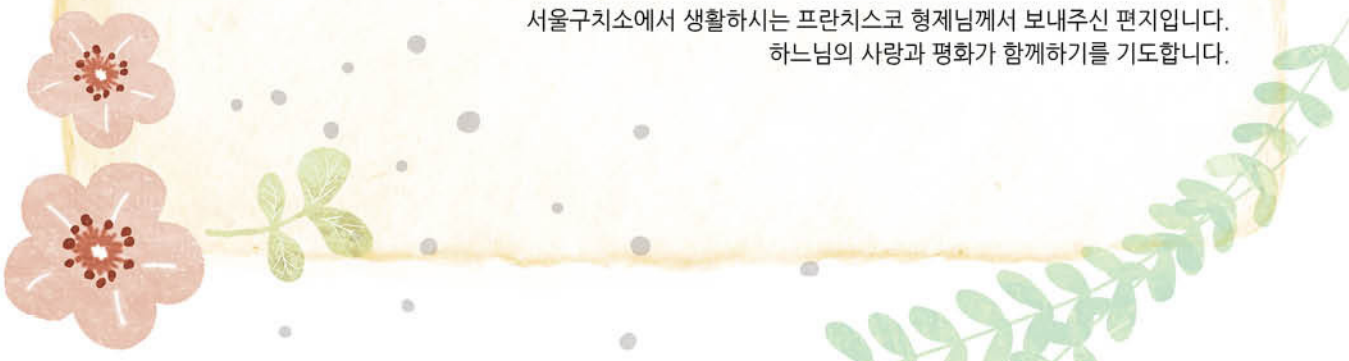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재워져야 할 아담의 정신이
괴롭고 혼돈과 패괴의 망국이 자리잡고 있지노 않은지 자각
정직해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항상 믿음의 사도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노 법이니까요!
아무님.

새해 새날들가다 기강잡히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길 믿습니.
이만 주이겠습니!

2019. 1. 13 주일세례 회당에
프란치스코 드나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시는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빛의사람들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일 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수형 생활을 하는 피고인입니다.

저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새삼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빛의사람들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빛의사람들 선생님 가정에 행복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9. 1. 31.

원OO 드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시는 형제님께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감사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4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4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8/12/11~19/1/11)

1월 ~ 2월에는 김기옥 베로니카, 김영순 소화데레사, 박승연 베로니카, 배석주 제레마로, 유연욱 소화데레사, 민형근 안드레아, 한세현 요한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3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3월 4일(월) ~ 5일(화) 사회사목국 위원장 워크숍 /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
- 3월 9일(토)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8차 정기총회 / 교정사목 센터
- 3월 14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3월 14일(목) ~ 20일(수) 서울남부구치소 1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3월 16일(토) ~ 17일(일) 대치2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대치2동 성당
- 3월 23일(토) ~ 24일(일)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봉사자 연수 /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